: 임철성 Rev. Chul Sung Lim

: 정진부 (214) 734-0815, 전희준 (224) 551-0775

: Yun Choi (847) 971-7242, John Kim (248) 894-2106

: 서요셉 김태한 이신형 김영래

: 이영걸 유진경

: 김종규 손기원 임명기 정병철 김형곤 김승식

: 김순철 한성호 이 훈 우현중 이병준

: 김사무엘 정규상 함성택 허만춘 김광근 이기수 함용철 강진산 김인철

김광식 용성순 함덕준 박양성 김언한

제1793호 2019년 8월 4일

깊이 박힌 한 말씀

드디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자원봉사자들이 네팔, 그 먼 길을 떠납니다. 네팔 단기선교팀 7명의 대원들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출발하는 7일부터 돌아오는 16일까지 최우선순위 기도제목으로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전체 진행을 담당하실 김승식 장로님을 위해 특별히 더 기도드릴게요. 너무 멀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권면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였는데... 빛진 자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신 7명의 대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작년 코스타리카에서의 활약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활력이 되었던 것처럼 금번에도 활약과 활력을 기대합니다.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세미나의 첫째날 저녁은 이문범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목회의 고비마다 말씀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음성 5구절을 소개하며 사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짜증 가득한 인생 앞에서 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롬8:28), 더 사랑하면 된다는 목회로의 부르심 (요21:15), 목회는 끝까지 견디는 것 (고전13:4,7), 목회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 (고전15:58), 중환자실에서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마25:21)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해석되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큰 고백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서 '나의 인생을 바꾼 한 말씀은 무엇이었지?' 를 생각했습니다. 총신대학원 2학년, 학업, 사역 그리고 가정생활에 지쳐 신학교를 그만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렵 한 교수님으로부터 "요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나요?" 질문을 받았습니다. "죽을 맛" 이라고 대답했지요. 그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10:10)" 고 말씀하시던 그 한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구원의 삶에 만족하던 나를 풍성한 삶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한 말씀이 궁금합니다.

2019. 8.4. 임철성 목사 올림

주일에배순서

2019년 8월 4일

1부:7시/2부:9시/3부:11시 인도-1,2,3부:정진부 목사

▲기 원 Invocation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참회기도 Repentance	각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개회찬송 Hymn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새 618)
▲성서교독 R.Reading	24번 시편 46편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기도 Prayer	1부: 김태영 집사/ 2부: 용성순 장로/ 3부: 강진산 장로
찬 송 Hymn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새 486/통 474)
봉 헌 Offering	2부, 3부: 여성중창
▲봉헌기도 Prayer	임철성 목사 Rev. Chul Sung Lim
환영/교회소식 Welcome	새교우
성경봉독 Scripture	로마서 8:18~27 Romans 8:18~27
	1부: 나 어느날 꿈을 헤매며 / 3에스더 2부: 하늘의 문을 여소서 / 시온성가대 3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할렐루야성가대
찬 양 Choir	
설 교 Sermon	탄식, 탄식 그리고 탄식 임철성 목사 Rev. Chul sung Lim
▲폐회찬송 Hymn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새 272/ 통 330)
▲축 도 Benediction	임철성 목사 Rev. Chul Sung Lim ▲표는 일어섭니다(Congregation shall rise)

8월 예배 및 봉사위원

강 단 꽃	이번주: 문인혜 이성혜	다음주: 신인순
친 교	이번주: 김희대	다음주: 양정희
1 부 찬 양	이번주: 3에스더	다음주: 4에스더
다음주기도	1부: 조원화 2부: 김언한 3부: 한성호	
헌 금	1부: 김태영 이성준	
	2부: 오윤상 오혜미 박수미 이남희	
	3부: 김보한 김명분 이라미 강승현 최태식	
친 교 봉사	이번주: 2구역 한창익 11일: 22구역 이현영 18일: 23구역 이현구	

여름사역보고의 밤

8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

찬 양	예찬팀 인도 정진부 목사
성경봉독	시편 145:1~7
설 교	He's not finished with us yet Yun Choi 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축 도	정진부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55]

5(월)	6(화)	7(수)	8(목)	9(금)	10(토)
임철성목사	서요셉목사	김태한목사	전희준목사	정진부목사	이신형목사
겔 17:1-10	겔 17:11-24	겔 18:1-18	겔 18:19-32	겔 19:1-14	겔 20:1-26
교회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되도록/사역자를 위하여	환우들과 출타한 성도들을 위하여	주휴가파송선교사와 협력선교사/ 각 선교회를 위하여	몸이 아픈 자녀들 (작은별)가정/ 흠여져있는 자녀/ 가족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한국 교회/미국교회를 위하여	주일예배/주일 학교, EM예배를 위하여

중 보 기도

-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되도록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되도록
 - 금주의 행사: 한어부 여름수련회(일-화) 네팔 선재총단지선교(수-) 여름사역보고의 밤(금)
- 교우를 위하여

환우: 안주영 정정주 김원신 주연화 이동현 류순희 김영자 이은영 이성희 손성에 이호민 김상희 이가은 김복란 안종국 김미애 김그레이스 김연향 김군자 김세환 김정자 이용주
- 한국과 미국, 선교사님을 위하여
 -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화합
 - 북한의 동포와 탈북자들을 위해
 - 선교사 및 선교단체: 이능성 선교사(나이지리아) 시카고 다민족교회(홍귀표 목사)

2019년 헤브론 선교지

T국	배혜수	시카고 다민족교회	홍귀표
헝가리	김홍근	C국	서문안
파테말라	김찬수	T국	조종우/조애영
아르헨티나	파송 선교사 이광보	방글라데시	김종민
우즈베키스탄	윤누가	크리스찬비전선교회	허만춘
볼리비아	이건화	산소망 중도실명자 선교회	김재홍
나이지리아	이능성	중부개혁신학교	
페루	김성일	아시아 안환우회	
케냐	이사야	한인서로돕기센터(시카고)	신중균
네팔	이세정	시카고주빌리통일구교회	
레소토	김역수	몽골교회	Nuudel
겨자씨선교회	박양성	미션사랑방교회	박미섭
고구마글로벌미션		아이오와다민족교회	서정호
		방글라데시	피터윤

8월 교회행사

8월 2일(금)-4일(일):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세미나 (이문범 교수)	
4일(일)-6일(화): 한어중고등부 수련회	
7일(수)-16일(금): 네팔 선교사재총전세미나 단기선교	
9일(금): 여름사역 보고의 밤	
11일(일): 선교회 월례회/위원장월례회/정기당회/양로원방문	
16일(금): 엠마오선교회 헌신예배	21일(수): 구역지도자 모임
25일(일): 청지기 수련회	31일(토): 구역예배

교회소식

-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세미나 [강사: 이문범 교수]

오늘 오후 1:00~2:00, 오후 2:30~5:00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선교회 성경공부

오늘은 성경세미나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는 월례회로 모입니다.
- 한어중고등부 여름수련회

오늘 오후 2:00 출발하여 6일(화) 오후 3:00 경에 돌아옵니다.
[Inspiration Retreat Center(WI), 회비: \$100, 강사: 윤병혁 목사]
- 네팔 선교사재총전세미나

7일~16일(금) 총 7명의 선교팀이 네팔로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기도편지를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원: 김승식 김혜정A 서정희 홍성임 전에스더 이경애 박속희]
- 여름사역 보고의 밤

9일(금) 오후 8:00 교육위원회 주최로 있습니다.
- 큐티교재 구입

선교회별로 매일성경 9/10월호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 시온성가대 이영훈 (베이스), 이정애 (엘토)
- 부임: 김영래 목사 (엠마오 루디아 담당 협동목사)
- 교역자동정: 휴가-임철성 목사 (8일~10일)
- 교우소식

친교-김광식 장로(김연향 권사) 가정에서 기도해주심에 감사하여 떡 대접
출타-함용철/함혜순

새가족환영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본당로비 안내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